

#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하고 의탁하지 않는게 선 수행

## 유마경 불이선(不二禪)

몸은 무상해 무력하고 썩게 돼 믿을 것이 못 된다. 또한 고뇌의 원인이며 갖가지 병이 모이는 곳이라 지혜에 밝은 사람은 믿고 의탁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수행과 생활이 조화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수행은 실참이고 생활은 연습'이라 표현합니다. 실참이란 삶의 핵심이고 연습이란 보조임을 뜻하는데, 이것은 수행을 위해서 생활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와 같은 사고의식이 생겼을까요? 인생무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생무상의 이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생활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생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수행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법신(法身)과 결합한 자재(自在)인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행이란 실참의 생활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닌 불이법문(不二法門)을 불이좌선(不二坐禪) 또는 불이선(不二禪)이라 표현하며, 색신(色身)의 무상(無常)을 체득하고 법신과 결합(契合)하는 실참생활을 '불이선 수행' 또는 '생활선 수행'이라 표현합니다.

공(空)! 공을 찾아 예부터 수없이 많은 수행자가 눈빛을 밝히고, 눈빛이 가리며, 눈빛이 속으면서 지옥과 천당을 왕래하는 기본으로 생사와 열반을 시시때때로 들락거립니다. 왜 공을 찾을까요? 공을 진정한 자신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공을 진정한 진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공을 현실세계의 번뇌를 떠난 열반세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찾아보죠! 어떻게 찾지? 막상 찾아 나서니 공으로 인식했던 그 무엇 하나 공을 찾는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생활을 떠나서 환상의 공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환상이 아닌 진정한 공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이 무상함을 확실히 체득했을 때 공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구마라집 대사는 <유마경>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무상의 체득이 바로 공문(空門)에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왜 인생이 무상한지 유마 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공부해보죠!

"유마 대사가 병들어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많은 사람이 문병을 왔습니다. 유마 대사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에 병이 있음을 예로 들어 인생무상의 이치를 일깨웁니다. '선지식들이여! 이 몸은 무상하여 무력하고 썩게 되어 믿을 것이 못됩니다. 또한 고뇌의 원인이며 갖가지 병이 모이는 곳이라 지혜에 밝은 사람은 믿고 의탁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

말랑을 같아 만질 수 없고, 이 몸은 거품과 같아 오래 유지하지 못하며, 이 몸은 아지랑이와 같아 갈아보면 부서 생겼고, 이 몸은 파초와 같아 남는 그 무엇 없으며, 이 몸은 허깨비와 같아 잘못된 생각으로 생겨났



북경대에서 '승조의 <유마경> 불이상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암 스님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참선과 다도, 요가, 태극권 등 방편을 통해 불자들에게 불이선을 가르치고 있다. 사진은 정암 스님의 제자가 중국의 유자원생들을 대상으로 차훈명상(차를 통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조복, 내적인 성숙을 기대하는 명상법)을 지도하는 모습.

고, 이 몸은 꿈과 같아 허망한 생각일 뿐이며,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 업연에 따라 나타나고, 이 몸은 메아리와 같아 인연 따라 생겨나며, 이 몸은 뜬구름과 같아 변화하며 사라지고, 이 몸은 번개와 같아 생각마다 바뀝니다."

(구마라집 역, <유마경> '방편품'에서)

이와 같이 봤을 때 공문에 들어가는 수행자는 법신이 색신(色身)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 이외 나의 무엇이 있지? 습관적으로 몸을 자기 생명의 중심으로 인식하면서 살아온 결과 막상 몸을 내려놓으면 그 무엇도 붙잡을 게 없습니다. 성인은 붙잡을 게 없는데서 자유롭게 소요합니다. 그러나 범부는 붙잡을 게 없는데서 갈광질풍 불안해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현실세계를 떠나 열반적정의 이상세계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찾아 나서수록 더욱 구속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현실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몸만 두고 마음만 열반세계에 가겠노라 외치면 가능할까요? 죽어 시체를 남긴 후엔 몰라!

유마 대사에서 몸이 무상함을 강조하신 것은 빨리 죽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한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사를 해탈하는 것과 몸이 있고 없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탈이란 몸과 마음의 근원인 법신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도리(道理)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미혹에 빠져 있다는 것은 법신을 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신(法身)은 곧 불성(佛性)입니다. 법신과 결합된 삶에서 생사로부터 초연한 해탈인생이 실현됩니다. 어떻게 하면 법신과 결합될 수 있는지 유마 대사의 가르침과 상응하면서 공부해죠!

"선지식들이여! 이런 허망한 몸을 멀리하고 불신

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수행정신으로 수행법과 상응하느냐에 따라 법신을 성취할 수 있고 또는 색신에 미혹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호 대사에서 말씀하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는 이치처럼!

문제는 수행자 자신입니다. 수행자가 어떤 수행정신으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가 담고 있는 수행법과 수행력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유가 되고 세상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인 수행정신이 관건입니다.

<유마경>에서 밝히고 있는 불이좌선의 수행정신을 승조 대사의 주석과 함께 공부해보죠!

"작은 마음으로 선수행하는 선지식은 생사의 관문에 막혀 능히 화광(和光: 진리의 빛을 숨기고 중생을 교화함)하지 못한다. 큰 마음으로 선수행하는 선지식은 미악(美惡)에 제지(齊旨)하고 도속(道俗)이 일관(一貫)하여 온 종일 범부(凡夫)이면서 온 종일 도법(道法)과 함께한다."

#마음이 안에도 밖에도 있지 않는 것이 좌선  
"몸은 환상으로 만들어진 집인데 마음이 어찌 그 안에 머물렀는가! 만물은 모두 허구인데 마음이 어찌 그러한 밖에 있겠는가! 작은 마음으로 선수행하는 선지식은 잡념을 방지하기 위해 마음을 안에 묶어둔다. 어리석음으로 선수행 자체를 모르는 범부는 많이 구하기엔 생각이 밖으로 움직인다. 큰마음으로 선수행하는 선지식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하기에 안과 밖 그 무엇에도 의탁하는 바 없다."

#제견 부동하며 삼십칠도품 수행하는 것이 좌선  
"대저 망견(妄見)으로 보는 것을 삼는 자는 그러한 망견을 없애고자 도품(道品)을 닦는다. 그러나 큰마음으로 선수행하는 선지식은 모든 망견의 진성(眞性)을 관(觀)함이 바로 도품이다."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  
"번뇌의 진성(眞性)이 바로 열반이니 지혜의 힘이 강한 수행자는 번뇌를 관(觀)하면 바로 열반에 들게 된다. 번뇌가 끊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열반에 들어가 지 않는다. 이와 같이 평등한 수행법으로 좌선하는 것을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인데, 어찌 사리불 당신처럼 앉아서 번뇌가 끊길 때를 기다리겠는가!"  
(승조 지음 <유마경주> '제자품'에서)

## '인생무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생활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생활임을 알 수 있다

(佛)을 즐겨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은 곧 법신이기 때문입니다. 법신은 무량한 공덕과 지혜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계(戒), 정(定), 혜(慧), 해탈(解脫), 해탈지견(解脫知見)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자비회사(慈悲喜捨)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보시, 지계, 인욕, 유희(柔和), 근행(勤行), 정진, 선정(禪定), 해탈, 삼매(三昧), 다문(多聞), 지혜 등 모든 바라밀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방편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육신통(六神通)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삼명(三明)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지관(止觀)에서 발현합니다."

(구마라집 역 <유마경> '방편품'에서)

유마 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불교의 어떤 수행법으로 정진해도 법신과 결합될 수 있다는 이치를 알았

#마음 · 몸이 삼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좌선  
"대저 법신의 좌선이란 형(形)과 신(神)이 모두 떨어져 도(道)가 상경(常境)과 끊겨 보거나 듣는 걸로 그것을 알 수 없다. 어찌 몸을 다시 삼계에 나타내어 의(意)를 닦는 정(定)을 만든다 하겠는가?"

#멸정에서 모든 위의 나타내는 것이 좌선  
"작은 마음으로 선수행하는 선지식은 멸정(滅盡)에 들면 몸이 마치 고목처럼 되어 운용의 능력이 없다. 큰마음으로 선수행하는 선지식, 즉 대사(大士)가 실상정(實相)에 들면 심지(心智)가 영멸(永滅)하여 몸이 우주에 중만한 기(氣)에 순응하여 변화하니 상응하고 모인에 국한된 곳이 없다."

#도법 버리지 않고 범부사 나타내는 것이 좌선

여기에서 현대 사회의 출가수행자와 재가수행자가 특히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심신불이(心身不二)와 스님과 재가가 둘이 아닌 승속불이(僧俗不二)의 불이선경(不二禪境)에 노닐 때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닌 생활수행이 이루어진다는 이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수행하기 좋은 때입니다. 유마 대사처럼 세상에 함께 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초연한 자재인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르침과 도량 그리고 선지식이 많습니다. 평소생활에서 겸허한 마음, 무상의 체득, 법신과 결합된 수행정신이 이어지면 처처가 자신의 수행을 돕는 선지식이며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비행입니다.



정암 스님  
유마경 수행카페  
cafe.daum.net/yumageyeong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증흥발원**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달마사 청요 합장

실용신인특허의 기술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처원을 이루소서

- 제품명: 순금천불명인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 게 25kg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들어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형 소법문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털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